

사회

# '반값 등록금' 촛불 다시 불붙나

### 전남대·조선대 학생, 공약 이행 삼보일배... 오늘 총장로서 촛불문화제

## 광주·전남 학자금 대출 연체자 4169명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내 집회와 거리 시위가 잇따르면서 촛불 재점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촛불집회와 동맹 휴업이 29일로 예고된 상황 이어서, 이번 대학가의 시위는 장기 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4169명으로, 이 지역 대학의 연체자가 수도권 대학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인 이상 이번 '반값 등록금' 시위는 어느 때 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학

자금 대출 학내별 연체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8월 기준 지역 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 중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모두 416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전남 전체 대학생 15만477명의 2.7% 수준이다.

학교별로 보면 조선대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372명), 호남대(224명), 광주대(209명), 서영대(204명), 광주보건대(174명), 조선이공대(174명), 목포대(171명), 동강대(171명), 동신대(169명) 등의 순이었다.

조선대와 전남대 학생들은 26일 오전 각각 학내에서 삼보일배와 학부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즉각적인 반값 등록금 실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양 대학 학생들은 27일 오후 3시

각각 '반값등록금' 학생총회를 가진 뒤, 오후 6시30분부터 광주 총장로 거리에서 거리강화·난장·플레이플·명사강연회·문화콘서트·반값분식점 등 시민촛불문화제를 펼칠 계획이다.

조선대 학생들은 26일 오전 10시 '반값등록금 광주운동본부'와 함께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미술대학을 지나 서석홀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실천을 요구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 조대생 학부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학부모와 삼보일배를 한 학생들과의 포옹이 이뤄진 데 이어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달픈 사연들이 나왔다.

전남대 학생들도 이날 오전 경영대 앞에서 학생회관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광주본부'도 26일 출근 시간에 맞춰 광주지역 대학 교문과 주요 교차로에서 100여 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향후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등록금이 오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라'고 하는 등 반값등록금 약속을 깨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휴학을 하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연 조선대학생총회추진위원장은 "대출한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더 늘지 않도록 정부는 속히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학생들이 26일 오전 대학 공과대학 앞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에어 앰블런스 첫 출동 위독 할머니 살렸다

## 비금도 장출혈 환자 40분만에 병원 이송

최근 전남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 낙도, 오지 응급의료전용헬기(광주·일부 9월 26일 6편)가 장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목숨을 살려 진가를 발휘했다.

'에어 앰블런스'로 불리는 응급의료헬기 운항통제실에서 벨소리가 울린 것은 26일 오전 11시 34분. 신안군 비금도에서 87세의 할머니가 갑작스런 장출혈로 쓰러져 신속한 후송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요청이었다.

이 할머니는 혈변 증상과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장출혈이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현지 병원에서

즉시 종합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긴급출동에 나선 의료헬기는 의료진을 태우고 낮 12시에 현장에 도착해 30분 뒤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 신고 40여분만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헬기에는 목포한국병원 문원식 응급의학과전문의와 김동선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환자 이송 도중 긴급수혈도 하며 환자가 안정을 되찾도록 도왔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 출동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의료헬기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출산 축하금' 어찌하오리까

다음달 1일 광주시의 구간 경계 조정을 앞두고 난데 없는 출산 축하금 문제가 '난제'로 등장했다. 광주시와 동구, 북구 등이 구간 경계 조정으로 인해 출산 축하금을 받지 못하게 된 동구 산수동 4가구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구서 북구로 편입 4가구 경계 조정 수백만원 못받아

광주시는 26일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되면서 동구에서 지급하는 둘째 아이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1가구에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 800만 원을 못 받게 된 3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조례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동구민이 아니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북구는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구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

서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광주시가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동구는 인구 유입대책의 하나로 첫째 아이의 경우 100만원(출생 100일 후 지급), 둘째 아이 200만원(출생 직후 100만원, 1년 뒤 1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출생 직후 200만원, 이후 4년간 1년마다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구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 축하금이 없고 다만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출생 직후 100만 원을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간 경계 조정으로 북구로 옮겨가는 이들 4가구는 출생 직후 축하금인 100만원과 2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지급되는 나머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죽하면 단정장 관공비에서라도 주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며 "광주시와 동구, 북구가 함께 논의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재조사하라" 장애인 감금·협박 통장서 돈 인출

영화 '도가니' 흥행 네티즌 요구 봇물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흥행 돌풍(관련기사 15면)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학교 법인과 관할 기관에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시작됐다. 이날 현재 1만9293명이 서명에 참여해 목표 5만명의 38%가 달성됐다.

글쓴이는 청원 게시판에서 "사건 발생 7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학교 법인 측에서는 (피해자들에게)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기관에서 1년 전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사과 성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건을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시판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해야 한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살아 숨 쉰다는 걸 보여주자",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이 순수한 어린 친구들의 마음에 대못질을 했다" 등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올랐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서부경찰, 남녀 넷 영장

지적장애인인 감금·협박을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불러내 감금하고, 통장에 돈 인출해간 김모(23·무직)씨와 이모(18·무직)양 등 남녀 4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일 일 밤 9시30분경 정모(23·지적장애 2급)씨를 광주시 서구 삼촌동 모 원룸에 가둔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지난 21일 오전 11시경 정씨를 서구 능성동 모 은행

에 데려가 정씨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104만 원을 인출한 뒤 갇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연인 또는 지인 사 이인 이들은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정씨가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을 통장에 보관중이라는 점을 노리고 전화로 "할말이 있다"며 불러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일 약 10시간 동안 감금당한 정씨가 자신들의 눈을 피해 탈출하자 택시를 타고 정씨의 집 앞에 먼저 도착해 다시 끌고 가는 가 하면 가족을 사칭해 동행한 뒤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발급받고 돈까지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 체포 조사

저축은행 수사 급물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26일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을 전격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이 행장을 체포했다. 같은 은행 장모 전무도 함께 체포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저축은행 경영진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경영진,

대주주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합수단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본점과 일부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저축은행 실무자들을 사전에 불러 조사한 뒤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경영진과 대주주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행장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김품수수 의혹 광주FC 단장 무혐의

직인 채용 청탁과 관련해 김품수수 의혹을 받은 광주FC 박모(52) 단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던 박 단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넌 최모(36)씨를 배임증제 혐의로 불기소 구속했다. 박 단장은 살날을 앞둔 지난 1월 28일 최씨가 보낸 케이크 선물을 받은 뒤 안에 들어있던 10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려줬으나 직인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나돌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찰시 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 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박 단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조건 만남'서 여자 행세 6천만원 행거

○채팅 사이트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남자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행거 혐의로(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윤모(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서울남부지법이 26일 발표했다.

○윤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337명으로부터 40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로 돈을 미리 받아 총 6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조사결과 윤씨는 처와 처형의 명의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것으로 판명.

/연합뉴스

# = D-day 100일 출제유형을 잡아야 합격이 가까워진다!! =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진

상위권 대학편입 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 열쇠, 지방유일 실감의

2013 편입영어 첫걸음

편입영어 (대학별 출제경향 완전정복)

편입수학 - 공학수학 이론/문풀

편입영어 (왕초보를 위한 문법/ 어휘이론)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0월 4일